

『논어』 攻乎異端장 고찰*

— 조선후기 諸說을 중심으로

俞英玉**

- | | |
|--------------------|------------------|
| I. 머리말 | III. '異端'에 대한 견해 |
| II. '攻'자 · '已'자 해석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攻乎異端장은 ‘攻’·‘已’의 풀이에 따라 크게 ①이단을 專治하면 해롭다, ②이단을 공격하면 해가 그친다, ③이단을 공격하면 해롭다고 해석된다. 『집주』가 ‘攻’을 ‘專治’로 보았기에, 조선시대 다수의 학자들은 이를 따랐다. 다만 攻擊-止설은 專治설보다 闢異端의 메시지가 강하기에 이를 따르는 학자들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③의 攻擊설은 闢異端에 위배되는 듯해 따르는 학자가 거의 없었다.

專治설에는 “專治하면 해롭고 略治하면 無害한가?”라는 의혹이 계속되었는데, 이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小註의 주자설 등에 주목하여 ‘專治’의 함의가 “略治는 해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楊墨老佛과 같은 邪說을 이단으로 보는 朱子와 달리 小道, 즉 百工衆技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단을 小道로 규정하면 略治는 해도 되기에 專治설의 오해를 불식시킨다. 하지만 이단을 邪說과 구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단에 대한 비판이 가벼워지는 단점이 있다.

주제어 : 『논어』 攻乎異端장, ‘攻’·‘已’, 異端, 楊墨老佛, 小道, 鄉原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연구교수

I. 머리말

유학에서는 사특한 異端을 물리치고 正道인 儒道를 保衛하는 것이 매우 중대한 명제다. 특히 정통론을 중시하는 성리학은 강렬한 道統의식을 전개하여, 道가 傳授된 계통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儒道를 수호하고 이단을 물리치는 사상투쟁에도 적극적이었다. 도통의 계보와 闢異衛道는 바로 도통론의 양날에 해당한다.¹⁾ 맹자가 楊·墨을 엄히 비판하고, 북송에 이르러 老·佛을 맹렬히 배척하며, 남송에서 老·佛에 陸學까지 더하여 내친 것은 곧 闢異端을 통해 斯道를 正學으로 사수하고자 노력한 행위였다.

중국 고대의 문헌에서 ‘異端’이라는 말은 『논어』와 『공자가어』에만 나타난다. 특히 『논어』 「위정」 16장의 ‘攻乎異端’ 구절은 ‘이단’이라는 말의 최초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정」편 16장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하나는 ‘攻’자와 ‘已’자를 어떻게 풀이하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단’이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문제다.

이에 본고는 攻乎異端장에 관련된 古註와 新註 및 조선후기²⁾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살펴, ‘攻’과 ‘已’의 해석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그와 연계하여 공자가 당시에 지목한 이단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³⁾

II. ‘攻’자·‘已’자 해석

「위정」 16장에서 孔子가 말한 “攻乎異端 斯害也已”는 해석이 매우 분분한 글이다. 다양한 이설이 제시된 이유는 바로 ‘攻’자와 ‘已’자에 대한 풀이 및 ‘이단’에 대한

1) 이경무, 「儒學의 道統과 學的 傳統」, 『철학연구』 92, 철학연구회, 2004, 246~251면 참조; 지준호, 「朱子門人의 道統意識」, 『동양철학연구』 35, 동양철학연구회, 2003, 360~363면, 367·382면 참조.

2) 한국문집총간 등을 살펴보니, 조선전기 학자들의 견해는 『논어집주』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3) 우리나라에서 攻乎異端장을 단독으로 다룬 논문으로는 유훈우, 「〈論語〉 ‘攻乎異端’章에 대한 한·중·일 주석의 비교」, 『한중인문학연구』 56, 한중인문학회, 2017이 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유사한 諸說들을 묶어보면 16장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된다. 즉 첫째는 이단을 (專)治하면 해롭다(또는 해로울 뿐이다), 둘째는 이단을 공격하면 해가 그친다, 셋째는 이단을 공격하면 해롭다는 해석이다.⁴⁾

1. 專治설

“이단을 (專)治하면 해롭다(또는 해로울 뿐이다)”는 해석은 ‘攻’을 ‘治’ 또는 ‘專治’로 풀이하고, ‘已’를 뜻 없는 어조사 또는 限定의 의미를 담고 있는 語氣辭로 풀이한다.

何晏(?~249)은 『論語集解』에서 ‘攻’을 ‘治’라 하고 ‘已’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가 말한 ‘治’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皇侃(488~545)의 『論語義疏』에 의하면, 하안이 말한 ‘治’는 ‘學’의 뜻으로 볼 수 있다.⁵⁾ 또 조선후기 김장생은 ‘治’를 ‘理會’라고 하였다.⁶⁾ 그렇다면 ‘攻=治’는 ‘배운다·학습한다, 이해한다·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

新註도 이를 이어 받아, 朱子は 『논어집주』에서 ‘攻’을 ‘專治’로 규정한 范祖禹의 견해를 수록하였다. 범조우는 「고공기」⁷⁾에 근거하여 ‘무엇을 전적으로 다룬다’는 의미로 ‘專治’를 말하였다.

范氏가 “攻은 專治다. 그러므로 木·石·金·玉을 다루는 工人을 攻이라 한다. …… 專治하여 정밀하게 하고자 하면 해됨이 심하다.” 하였다.⁸⁾

4) 그밖에 청나라 焦循은 『論語補疏』에서 ‘攻’을 ‘序’로 보아 “이단을 잘 정돈하면 害가 그친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彼此가 각각 一端이니, 자기 것만 고집해 소통하지 못하면 해롭다. 楊墨이 각각 爲我와 兼愛에 집착하지 않고 서로 切磋하면 無父無君에 이르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攻而害止다.”고 하였다. 즉 초순은 피차가 상호 교정하여 어그러지지 않는 것을 ‘攻=序’라고 본 것이다(李康齊, 「《論語》 上十篇의 解釋에 대한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8, 45면 참조.).

5) 皇侃, 『論語義疏』, 「爲政」 16장, “古人謂學爲治, 故書史載人專經學問者, 皆云 ‘治其書治其經也.’”

6) 金長生, 『經書辨疑』, 「論語」, 爲政 16장, “○按治字, 蓋謂理會也.”

7) 『論語集註大全』, 「爲政」 16장 小註, “新安倪氏曰, ‘周禮考工記有攻木之工攻金之工.’”

8) 『論語集註』, 「爲政」 16장 註, “范氏曰, ‘攻, 專治也. 故治木石金玉之工曰攻. …… 專治而欲精之, 爲害甚矣.’”

퇴계 이황은 ‘專治’를 ‘專心 一力하여 治한다’고 하였고, 구한말 조공섭은 ‘專治’를 ‘窮究’로 보았다. 또 『주자어류』에서는 ‘攻’을 ‘講習’으로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專治’는 ‘무엇을 전적으로 궁구 내지 강습한다’는 뜻이므로, 오늘날 대체로 ‘攻=專治’는 ‘전공하다’로 해석되고 있다.⁹⁾

성리학사회 조선에서는 대개 주자의 『집주』를 따라 ‘攻’을 ‘專治’로 보았다.¹⁰⁾ 하지만 ‘專治’의 함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매우 분분하였다.¹¹⁾ ‘專治’ 2자는 자칫 ‘專治하면 害가 있고 略治하면 害가 없다’는 말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선 후기 학자들은 당색이나 시기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미 ‘이단’이라 했으니 그것을 물리침이 오직 엄준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필 專治하여 정밀하게 하고자 한 뒤에야 비로소 해롭겠는가. 그렇다면 비록 점점 이단 속에 빠져 들어가더라도 專治하여 정밀히 하려는 데만 이르지 않으면 해가 되지 않는가?¹²⁾

대저 異端은 正道에 있어 물과 불 같으니, 어찌 專治를 기다려야 害가 되겠는가. 先儒들이 이에 대해 논한 說이 비록 많지만 끝내 의혹이 없을 수 없다.¹³⁾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小註의 주자설을 거론하거나 아니면 경문의 ‘斯害也已’ 구절 등에 주목하여, 『집주』의 ‘專治’가 결코 略治하면 괜찮다는 말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¹⁴⁾ 다른 하나는 Ⅲ장에서 후술하겠지만 ‘이

9) 李滉, 『論語釋義』, 「爲政」, 「(註)攻專治」, “專心一力而治之也.”; 曹兢燮, 『巖棲集』 권36, 「雜誌上」, “攻乎異端”, “集註攻專治也. 竊謂此治字, 如治經之治, 乃窮究之謂.”; 남구만은 ‘格物致知’의 ‘格’이 ‘攻乎異端’의 ‘攻’ 및 ‘討論經傳’의 ‘討’와 가깝다고 하였다.(南九萬, 『藥泉集』 권32, 「書」〈答崔汝和壬申〉, “格物之格字, …… 與攻乎異端之攻字, 討論經傳之討字, 亦相近.”)

10) ‘己’자에 대해서는 『집주』에 언급이 없다. 다만 선조 18~21년 『집주』를 대본으로 언해한 교정청본 『논어언해』는 ‘己’자를 어조사로 보아 “攻공하면 이 害해니라”로 해석하였고, 율곡본 『논어언해』도 “攻공하면 이 害호미니라”로 해석했다.

11) 鄭載圭, 『老柏軒集』, 「論語筭錄」, 爲政 16장, “攻乎異端章, 世多以爲專治有害, 則略治之無害否?”

12) 尹愔, 『無名子集·文稿』 제5책, 「文」, 〈疑題三下又有疑題〉, “既曰異端, 則闢之惟恐不嚴, 何必專治而欲精之, 然後始乃爲害歟. 然則雖駸駸然入於其中, 苟不至於專治而欲精之, 則不爲害歟?”

13) 吳熙常, 『老洲集』, 「讀書隨記·論語」, 爲政 16장, “夫異端之於正道, 如水火奚, 待專治而爲害耶? 先儒於此論說雖多, 終不能無疑矣.”

단’에 대한 견해를 아예 朱子와 달리하는 것이다.

小註에서 주자는 자신의 학문이 정립된 자가 아니면 이단에 대해 대략이라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 말에 의하면 ‘專治’라는 말이 조금 전공하는 것은 괜찮고 반드시 전일하게 전공한 뒤에야 해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문기를 “『집주』에서 ‘攻은 專治’라고 했는데, 학문을 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專治해야 하지만 이단의 경우는 專治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였다. “비단 ‘專治’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대략 아는 것도 안 된다. 만약 자신의 학문에 정립된 바가 있다면 이단의 병통을 알 수 있다.” 하였다.¹⁵⁾

이에 창계 임영(1649~1696)은 “대략 이해하면 해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되었으니, 小註의 주자설도 이를 경계하였다.”고 했다. 삼산재 김이안(1722~1791)과 농환당 어주빈(1736~1781)도 略治하면 괜찮다는 말이 아님을 강조하였고, 송시열의 8대손 송달수(1808~1858)는 『집주』의 ‘專治’와 小註의 주자설을 活看해서 보면 의심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¹⁶⁾

정종로 문하의 최상룡(1786~1849)은 ‘專治하여 정밀하게 하고자 하면(專治欲精)’이라는 말 속에 ‘대략 아는 것(略去理會)’의 뜻이 존재한다고 보고, 小註의 주자설은 아마도 初學者의 경우에는 대략이라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여겼다.¹⁷⁾ 한수

14) 다만 陶菴 李紱는 불교를 예로 들면서, 처음에는 그 해가 심하지 않았는데,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면벽한 지 9년에 心을 말하고 性을 말하자 사람들이 모두 따르게 되었으니, 專治하지 않고서 어찌 해가 심해지겠냐고 하였다.(李紱, 『泉上講說』, 「論語」, 爲政 16장, “曰, ‘…… 且以佛法言之, 感興詩所云西方論緣業卑誘羣愚, 此則佛法之害, 猶未深也. 至梁武帝時, 有達摩尊者, 自西域來, 面壁九年, 說心說性, 天花亂墜, 於是人皆靡然從之. …… 豈非專治而爲害甚者乎.」[聖源]) 이로 보면 도암은 略治의 경우에는 害가 심하지 않다고 생각한 듯하다.

15) 『論語集註大全』, 「爲政」 16장 小註, “問 ‘集註云攻專治之也. 若爲學, 便當專治之, 異端, 則不可專治也.’ 曰, ‘不惟說不可專治, 便略去理會他也不得. 若是自家學有定止, 去看他病痛却得.”

16) 林泳, 『滄溪集』 권21, 「讀書筭錄」, 「論語」 ‘爲政攻乎異端章’, “然學者若因此, 又以略去理會爲無害而欲爲之, 則亦誤矣. 此隨語生解, 而不知聖言之本旨者也. 故小註朱子說又戒之, 此亦聖人言外意也.”; 金履安, 『三山齋集』 권7, 「書」, 「答道基書院講儒 2」, “非謂畧治則可, 而必專治然後爲害也.”; 魚周賓, 『弄丸堂集』, 「論語說」, 爲政 16장, “若於吾道無親切見得, 而先於異端畧理會, 則固不待專治, 而已有害於心術矣, 亦不可不慎也.”; 宋達洙, 『守宗齋集』 권3, 「書」, 「答李汝喬世淵○庚戌」別紙, “就此兩說而觀之, 則專治二字, 亦別無可疑而正好活看也.”

재 권상하(1641~1721), 녹문 임성주(1711~1788), 이계 홍양호(1724~1802), 심재 조공섭(1873~1933)은 자기 학문에 定見이 있어 이단의 是非를 分別할 수 있는 사람 이더라도, 이단의 설을 범연히 보아 대략 시비만 알면 靚然지만, 專治하면 程子の 말처럼 어느새 이단 속으로 빠져버리니, 淫聲과 美色처럼 이단을 멀리해야 한다고 경계하였다.¹⁸⁾

화서학파의 유증교(1832~1893)는 ‘斯害也已’ 4자를 깊이 음미하여 ‘專治하면 더욱 해가 있다’고 보아야 ‘略治해도 이미 해가 있음’을 알 수 있지, 만약 ‘專治하여 비로소 해가 있다’고 본다면 ‘略治는 해가 없는 것’으로 오해되기에 안 된다고 하였다. 같은 화서학파의 유인석(1842~1915)도 ‘斯’자와 ‘已’자에서 ‘專治하면 더욱害가 있다’는 뜻을 볼 수 있으며, 專治하면 더욱 해가 있으니 畧治해도 대략害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¹⁹⁾ 또 최좌해(1738~1799)는 ‘斯害也已’는 ‘해로움 말고는 다른 것이 없을 뿐’이라는 말로, 하면 할수록 더욱 해롭다는 뜻이라고 하였다.²⁰⁾

-
- 17) 崔象龍, 『鳳村集』, 「四書辨疑論語」, 爲政 16장, “按集註, 取范氏專治欲精之說, 則略去理會之意在其中, 而小註云爾者, 恐以初學之士, 略加理會, 猶不可, 而學定之人, 可略去理會, 故曰去看病痛.”
- 18) 權尙夏, 『寒水齋集』 권19, 「書」, 〈答或人 2〉, “學者於異端之書, 若泛然看過, 略知是非則可矣. 一向沈潛, 專治欲精之, 則正如伊川所謂其身已化爲佛, 雖欲免縈磷, 不可得也, 豈不爲害於此學乎.”; 任聖周, 『鹿門集』 권13, 「雜著經義」, 〈論語己酉〉, “余曰, ‘所謂專治, 非謂專治其說而欲學其道也, 只曰學者於異端之說. 如淫聲美色以遠之, 不然而欲就其中, 究其是非得失, 則不知不覺, 已見其身坐在裏許, 此所以爲害也. …… 下文程子說亦可見矣.’”; 洪良浩, 『耳溪外集』 권2, 「講說」, 〈胄筵講說〉甲戌, “良漢曰, ‘…… 但所謂專治云者, 特釋攻字之義而已, 非謂猶許其畧治也. 程子所云, 如淫聲美色以遠之者, 深得此章之義.’”; 曹兢燮, 『巖棲集』 권36, 「雜誌上」, “攻乎異端, “異端雖非聖人之道, 而不知其說則亦無以辨其是非. 然欲專意窮究則則有害, 程子所謂待窮盡時, 便化爲佛是也.”
- 19) 柳重教, 『省齋集』 권4, 「往復雜稿」, 〈上重菴先生戊午〉, “蓋此章之旨, 深味斯害也已四字, 當作專治愈有害看, 今作專治始有害看, 此所謂未盡也. 蓋專治愈有害, 則畧治已有害可知, 而語意渾全, 該得終始. 專治始有害, 則畧治也無害, 而語意踈畧, 帶得罅漏.”; 柳麟錫, 『穀菴集』, 「經傳講義論語」, 爲政 16장, “然其曰‘專治斯害’, 畧治則斯可無害歟? …… 斯字已字, 可見專治愈有害之意, 專治愈有害, 則畧治畧有害, 可知矣.”
- 20) 崔左海, 『五書古今註疏講義合纂』, 「論語」, 爲政 16장, “斯害也已, 言害外無他耳. …… 而其實愈精愈害, 益勞益害, 害焉而已, 無一益於道也.”; 金曉東, 「乃菴 崔左海의 論語 解釋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2.2, 2면과 77~79면에서 “내암은 송시열의 학맥을 이어받은 정통 주자학자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주자설을 일방적 수용하지는 않고 독자적으로 說經하였으며, 주자학과 이외의 주석에 대한 포용성도 있었다.”고 하였다.

기정진 문하의 정재규(1843~1911)는 ‘害’자를 歇後로 보았다. 즉 ‘害也甚焉’이라 할 것을 뒷구절 ‘甚焉’을 생략하고 대략 ‘害也(斯害也已)’라고만 말했다는 것이다. 기정진의 다른 제자 정시림(1839~1912)은 『집주』 “專治而欲精之 爲害甚矣”의 ‘甚矣’ 두 글자에 주목하여, 이 2자에서 조금이라도 이단에 거처하면 해가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²¹⁾

이익(1681~1763)과 김간(1646~1732)은 『집주』의 ‘爲害甚矣’ 구절을 거론하면서 ‘已’자를 아예 甚辭로 보았고, 이면재(1803~?)와 박문호(1846~1918)도 ‘已’자에 ‘甚’의 뜻이 들어있다고 하였다.²²⁾

이로 보면 유종교 유인석 최좌해처럼 ‘斯害也已’를 ‘더욱 해롭다’로 보거나, 정재규 정시림 이익 김간 박문호처럼 ‘已’자를 ‘甚’의 뜻으로 보는 견해는, ‘已’자에 강조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已’를 限定의 어기사로 보는 쪽과 일정정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²³⁾

한편, 사계 김장생은 ‘攻’을 ‘講習’으로 일컬은 『주자어류』를 인용하였고, 이현익(1678~1717) 역시 ‘專治’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攻’을 ‘講習’으로 보는 것이 매우 좋다고 하였다.²⁴⁾ 위백규(1727~1798)는 ‘攻’을 『중용』 구절 ‘索隱行

21) 鄭載圭, 『老柏軒集』, 「論語笥錄」, 爲政 16장, “由看得害字, 歇後也. 集註所謂無父無君是害也. 古人用害字, 不歇後, 通書曰, ‘非仁非義非禮非智, 邪也甚焉.’ 害也, 於此可見.”; 鄭時林, 『月波集』, 「答問篇·論語」, 爲政 16장, “異端, 何待專治以後害耶? …… 楊墨之道, 專治而欲精之, 爲害甚矣. 觀甚矣二字, 學而差處有害, 可知.”

22) 李漢, 『星湖全集』 권28, 「書」, 〈答黃得甫戊午〉, “論語只云斯害也已, 已字若無意義, 則朱子何由知其有已甚之義耶? 如不足畏也已, 末如之何也已之類, 莫不有此意在, 未知如何.”; 金正默, 『過齋遺稿』, 「論語辨答補遺」, 爲政 16장, “又按金厚齋 …… 然若以已字作甚字讀, 則於文法太拘促, 恐非聖人言語氣像. 愚以爲也已二字, 只作語辭, 看正好詠歎言外意.”; 趙秉德, 『肅齋集』 권9, 「書」, 〈答李景學〉, “攻乎異端, 斯害也已之已字, 以甚字意看. 曾見厚齋集笥記, 亦如此, 而記不得本文矣. …… 今集註無已字之訓, 似與好學也已之已字, 無異矣.”; 朴文鎬, 『壺山集』, 「論語集註詳說」, 爲政 16장, “本文已字 有甚字意.”

23) 金幹, 『厚齋集』, 「論語笥記」, 爲政 16장, “按諺解曰, ‘異端을 攻으면 이 害나라’, 是言專治異端則斯爲害也, 此則以已字把作語辭意看也. 集註曰, ‘楊墨率天下, 至於無父無君, 專治而欲精之. 則爲害甚矣.’ 是言專治異端則其害甚矣, 此則以已字把作甚字意看也. 或者曰, ‘攻, 攻擊也.’ 言攻擊異端則其害止矣, 此則以已字把作止意看也. 三說各不同矣.”

24) 金長生, 『沙溪全書』 권12, 「經書辨疑·論語」, 〈爲政〉, “攻乎異端”, “語類朱子曰, ‘攻者, 是講習之謂.’”; 李顯益, 『正菴集』 권9, 「雜著」, 〈論語說上〉, “攻乎異端章”, “專治二字, 似若謂專治則有害, 而略治則無害. 然語類曰, ‘不惟說不可專治, 使略去理會他不得.’ 又曰, ‘攻者, 是講習之謂.’ 以講習意

怪’의 ‘索(깊이 찾음)’과 ‘行(행함)’ 2자의 뜻으로 보면서, ‘已’자는 단연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표현이라고 하였다.²⁵⁾

이상을 종합하면, ‘攻’을 ‘專治’로 풀이한 데 대해 그렇다면 略治는 無害하느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자,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한 방법으로 小註의 주자설이나 『집주』의 “專治而欲精之 爲害甚矣” 및 경문의 ‘斯害也已’에 주목하여, ‘專治’가 결코 略治는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님을 증명해왔다. 소론 학맥의 임영 홍양호 김간, 남인 학맥의 최상룡 조공섭, 노론 학맥의 권상하 임성주 정재규 정시립 위백규 이현익 김이안 송달수 최좌해 박문호 유종교 유인석 등이 모두 그렇게 분변하였는데, 여기에 노론 학통에 속하는 학자들이 매우 많다는 점은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다.

2. 攻擊-止설

“이단을 공격하면 해가 그친다”는 해석은 ‘攻’자를 ‘攻擊’으로 풀이하고, ‘已’자는 ‘止’로 풀이한다. 이 해석은 이단을 배척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단을 (專)治하면 해롭다”는 해석과 동일하지만, ‘攻’과 ‘已’자에 대한 풀이는 전혀 다르다.

주자는 ‘攻’을 ‘공격’으로 보는 일체의 견해를 모두 배격했지만, 南宋의 孫奕은 『(履齋)示兒編』에서 ‘攻’자를 ‘남의惡을 공격한다’는 ‘攻’자와 같다고 보고, 이단을 공격하여 우리 道를 밝히면 이단의 害人이 저절로 그친다고 여겼다. 명 태조 주원장도 ‘攻’과 ‘已’를 이처럼 풀었고, 청나라 고증학자 錢大昕(1728~1804)도 『十駕齋養新錄』에서 ‘攻’자는 ‘先進’ 16장 ‘북을 울려 공격하라’는 ‘攻’자와 같으면서 손혁의 견해가 古註보다 뛰어나다고 하였다.²⁶⁾

看, 甚好.”

25) ‘索隱行怪’는 『중용』 11장 “子曰 索隱行怪 後世有述焉 吾弗爲之矣”에 나오는 말로, 공자 자신은 색은행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자는 『중용장구』에서 ‘색은행괴’를 “숨겨진 궁벽한 이치를 깊이 찾고 지나치게 괴이한 행동을 하는(深求隱僻之理, 而過爲詭異之行)” 것으로 규정하였다.: 魏伯珪, 『存齋集』, 「讀書劄義-論語」, 爲政 16장, “攻字, 是索隱行怪索行二字意, 已字斷無餘疑之辭.”

26) 李康齊, 앞의 1998 논문, 46~47면 참조. 한편, 이 논문 47~49면에 의하면, 『논어』에는 ‘攻’자가 총 4회 나오는데, 공호이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3회의 ‘攻’자는 모두 ‘공격하다’로 쓰였다. 또 『논어』

조선후기 이현익과 위백규는 ‘攻’을 ‘공격’의 뜻으로 보면 ‘攻乎異端’의 ‘乎’자가 불필요할 뿐더러, ‘이단’을 지칭하는 뒤 구절의 ‘斯’자도 두지 않았을 것이며, ‘已’자도 實辭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²⁷⁾ 그러나 조선에서도 “이단을 공격하면 해가 그친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종종 있었다.

여기서 ‘攻’자는 주자가 처음에 呂博士[여대립]의 주장을 채용하여 ‘공격’의 ‘攻’으로 보았다가, 도로 다시 ‘專治’의 뜻으로 고쳤다. …… 근래 선비들이 종종 주자가 이미 고친 이전의 설을 다시 고수하여 “…… 略治도 이미 해가 있거늘 어찌 專治하여 정밀히 하고자 하기를 기다리겠는가?”라고 한다.²⁸⁾

특히 지봉 이수광(1563~1629)은 손혁과 전대훈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따라, 우리도를 밝혀 이단을 종식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이단을 治하기만 하면 도리어 해가 된다고 하였다.

혹 ‘攻’을 ‘治’로 여기지만, ‘북을 울려 공격하라’는 ‘攻’과 같다. 대개 吾道와 異端은 병립할 수 없어, 이쪽이 盛하면 저쪽은 衰하고 저쪽이 盛하면 이쪽이 衰한다. 이때 성인의 가르침이 밝지 않아 이단이 멋대로 횡행하니, 오직 吾道를 밝혀 교화를 행한다면 저들이 장차 저절로 그칠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다만 治하려고만 하면 도리어 해가 될 뿐이다.²⁹⁾

에는 ‘也已’가 공호이단장을 포함 총 8회 등장하고 ‘也已矣’도 8회 출현하는데, 공호이단장을 제외한 총 15회에서 ‘已’가 ‘그치다’로 쓰인 용례는 없다.

27) 李顯益, 『正菴集』 권9, 「雜著」, 〈論語說上〉, ‘攻乎異端章’, “而以攻乎爲攻斥之義, 乎字未妥, 斯害之斯, 爲指異端也. 已之已, 爲止之意, 文義亦不如此.”; 魏伯珪, 『存齋集』, 「讀書箴義-論語」, 爲政 16장, “若如明祖之訓攻斥異端其害乃止, 則必不下乎斯二字. 已字, 尤不合, 且已字爲實字, 則必不下也字.”

28) 柳重教, 『省齋集』 권34, 「講說雜稿」, 〈論語講義發問[甲申秋]〉, ‘攻乎異端’, “此攻字, 朱子始用呂博士之論, 作攻擊之攻, 旋復改之以專治之意. …… 近日士流往往有復守已改之前說, 以爲‘…… 略治已有害, 何待專治而欲精之耶?’”

29) 李晬光, 『芝峯類說』 권6, 「經書部 2」, 〈論語〉, “攻乎異端, 斯害也已. 或以爲‘攻治也, 與鳴鼓而攻之之攻同.’ 蓋吾道異端, 不容並立, 此盛則彼衰, 彼盛則此衰. 是時聖教不明, 異端肆行, 唯明吾道, 以行教化, 則彼將自熄. 若不如此而徒欲治之, 則反爲害而已.”

이로 보면 “이단을 공격하면 해가 그친다”는 해석은 “이단을 專治하면 해롭다”는 해석보다 闢異端의 메시지가 더 선명하고 강렬하다. 혹자는 공자가 ‘攻則斯害’라고만 말하고 만 것이 이단에게 너무 寬宥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했는데,³⁰⁾ 이런 의심이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단을 공격하면 해가 그친다”는 해석이 더 타당하게 여겨졌을 듯하다.

3. 攻擊설

“이단을 공격하면 해롭다”는 해석은 앞의 두 해석과는 의미가 완전히 상반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은 ‘攻’자를 ‘공격’으로 풀이하되 ‘已’자를 뜻 없는 어조사로 풀어, 설령 이단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면 도리어 해롭다고 생각하였다.

북송의 장횡거를 비롯하여 呂·謝·楊·周氏가 모두 「위정」 16장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攻’자를 ‘공격’으로 보았기 때문이지만, 그 근거로 든 설은 각각 달랐다.

“程子和 范·尹氏의 말이 옳다. 張子와 呂·謝·楊·周氏³¹⁾는 모두 ‘攻’을 ‘공격’의 ‘攻’으로 잘못 여겼는데, 그에 대한 說은 또한 같지 않다.” 하였다. “어떻게 같지 않습니까?” 하니, “張子의 말에는 공자를 옳다 하고 맹자를 그르다고 여기는 뜻이 있는 듯하여, 그의 평소 언행과 크게 같지 않은 점이 있으니, 대개 밝지 못한 것이며, 孔子께서 이단을 물리치지 않았다(不闢異端)고 했으니, 그 고찰 역시 상세하지 않다. ……” 하였다.³²⁾

30) 이러한 유천서(柳範休)의 물음에, 이상정은 “이는 專治하여 정밀히 하고자 하면 반드시 해가 된다는 뜻이니,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경계함이 깊다.”고 답하였다.(李象靖, 『大山集』 권36, 「書」, 〈答柳天瑞問目[論語]〉, ‘攻乎異端章’, “聖人只曰攻則斯害云云, 聖人雖辭不迫切, 只如此說, 不其太寬宥乎? ……” ‘聖人辭不迫切而意已獨至. 其意蓋曰專治而欲精之, 必爲害矣. 其戒之亦深矣, 豈有太寬宥之疑乎.’”)

31) 여씨는 呂大臨, 사씨는 謝良佐, 양씨는 楊時, 주씨는 周孚先을 가리키는 듯하다.

32) 朱熹, 『四書或問』, 「論語」, 〈爲政〉, “或問攻乎異端之說, 曰, ‘程子范尹之言, 正矣. 自張子呂謝楊周氏, 皆誤以攻爲攻擊之攻, 而其所以爲說者, 亦不同也.’ 曰, ‘其不同奈何?’ 曰, ‘張子之言, 若有是孔非孟之意, 與其平日之言行, 有大不相似者, 蓋不可曉然, 謂孔子不闢異端, 則其考之亦不詳矣. ……”

장횡거는 공자는 맹자와 달리 이단을 물리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사씨 또한 “공자께서는 怪力亂神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 공격하지 않으셨으니, 이단 역시 그냥 둘뿐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셨다.” 하면서, 장횡거처럼 공자의 不關異端을 주장하였다.³³⁾ 그러나 주자는 공자가 이단을 물리치지 않았다는 장횡거의 말은 고찰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사씨는 “이단은 우선 보존해두어도 해가 심하지 않고, 공격하면 도리어 사태를 키워 해가 막대하다.”고 했지만, 주자는 “성인께서 천하 후세를 염려함이 깊으시니 ‘이단을 우선 보존해도 해가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사씨는 또 “儒道에 식견이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단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주자는 이 말이 사리에 매우 어긋난다고 보고, “우리가 이단을 물리치는 까닭은 바로 사람들이 儒道를 알지 못하고 이단의 邪說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³⁴⁾

여씨는 “常道가 바르면 사특함이 없으니 이단을 공격할 것 없이 君子는 反經할 따름”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주자는 반경에만 힘쓰면 된다는 여씨의 말이 좋기는 하지만 그릇되었다고 하면서, “정도와 이단은 물과 불 같아서 이것이 성하면 저것이 쇠하니, 이단의 해를 보고 바로잡지 않으면 그 폐단을 어떻게 제거하여 反經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였다.³⁵⁾

33) 朱熹, 『論孟精義』, 「論語」, 〈爲政〉, “謝氏曰, ‘…… 故夫子於怪力亂神, 特不語而已, 無事於攻也. ……’”; 朱熹, 『四書或問』, 「論語」, 〈爲政〉, “謝氏以夫子爲不關異端, 則亦若張子之云也.”

34) 朱熹, 『論孟精義』, 「論語」, 〈爲政〉, “謝氏曰, ‘…… 皆所謂異端, 然當定哀之時, 去先王猶近, 故其失亦未遠, 姑存之則未甚害也. 欲攻之則無徵, 無徵則弗信, 弗信則民弗從, 其爲害也莫大焉, 恐其不免推波助瀾縱風止燎也. …… 彼有一識吾之門牆, 能以善意從我, 則其於異端, 豈待吾言而判哉. 若孟子之於楊墨不得不辨, 則異乎此.’”; 朱熹, 『四書或問』, 「論語」, 〈爲政〉, “然其所謂姑存而無害者, 吾恐聖人之憂天下慮後世, 不如是之淺且近也. 謂其識吾之門牆, 能以善意從我, 則於異端不待言而判者, 其乖於事理, 益以甚矣. 夫吾之所以關之, 正爲其不識吾之門牆, 而陷於彼之邪說耳. 若既識於正而從我矣, 則又何關之云乎.”

35) 朱熹, 『論孟精義』, 「論語」, 〈爲政〉, “呂氏曰, ‘君子反經而已矣. 經正, 斯無邪惡. 今惡乎異端, 而以力攻之, 適足以自敝而已.’”; 朱熹, 『四書或問』, 「論語」, 〈爲政〉, “若呂氏之所以爲說者, 則善矣, 然亦非也. …… 然熟視異端之害, 而不一言以正之, 則亦何以祛習俗之蔽, 而反之於經哉. 蓋正道異端, 如水火之相勝, 彼盛則此衰, 此強則彼弱, …… 然亦有不可不辨者, 熟觀孟子所以答公都子好辨之間者, 則可見矣.”

양씨와 주씨는 楊墨이 우리 儒道로 돌아오면 받아줄 뿐이지 도망간 돼지를 쫓듯이 하면 안 된다는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³⁶⁾ 이단을 공격하면 해롭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주자는 「진심하」편 26장은 공호이단장의 본뜻과 맞지 않다고 반박하였다.³⁷⁾

이와 같이 주자는 각각의 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단을 공격하면 해롭다는 견해를 모두 배척하였다. 조선시대 학자들도 이 장을 “이단을 공격하면 해롭다”고 해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본디 경전 해석에 있어 주자설과 다른 부분이 많았던 박세당은 이 장에서 주자와 달리 ‘攻’을 ‘공격’으로 보아, 이단이라도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저 이단을 치하면 해가 된다는 것과 이단을 伐하면 해가 그친다는 것은 說을 낭비하지 않아도 어리석은 사람조차 알 것인데, 성인께서 어찌 이에 대해 말씀하셨겠는가. 또한 누가 그것이 이단인 줄을 알면서도 專治하려는 자가 있겠는가. 夫子께서 일찍이 “사람으로서 仁하지 못한 자를 너무 심하게 미워해도 亂을 일으킨다.” 하셨으니, 내 생각에는 아마도 이 章의 뜻 역시 그와 같을 듯하다. 비록 이단이라도 이를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면 혹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감히 반드시 그렇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³⁸⁾

그 근거로 박세당은 不仁을 너무 미워해도 亂을 일으키게 한다³⁹⁾는 공자의 말을 거론했는데, 이는 이단을 지나치게 미워하여 힘써 공격하면 이단의 사람이 용납되는 바가 없어 반드시 격분해 승부를 겨루려고 난을 일으키니 도리어 해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⁴⁰⁾

36) 『맹자』, 「盡心下」 26장, “孟子曰, ‘逃墨, 必歸於楊, 逃楊, 必歸於儒, 歸, 斯受之而已矣. 今之與楊墨辯者, 如追放豚, 既入其苙, 又從而招之.’”

37) 朱熹, 『論孟精義』, 「論語」, 〈爲政〉, “楊氏曰, ‘異端之學, 歸斯受之, 可也. 如追放豚, 則害矣.’”; 朱熹, 『四書或問』, 「論語」, 〈爲政〉, “周氏, 則又并與子夏孟子之言, 而失其旨.”

38) 朴世堂, 『思辨錄』 제3책, 「論語」, 〈第2爲政〉, “子曰攻乎異端斯害也已”, “夫治異端而爲害, 與伐異端而害止, 不待費說, 愚夫猶知, 聖人何爲於此. 且孰有知其爲異端, 而欲專治之者乎. 夫子嘗曰, ‘人而不仁, 疾之已甚, 亂也.’ 愚意恐此章之義, 亦如此. 雖異端而若攻擊之太過, 則或反爲害也. 然亦不敢自信其必然耳.”

39) 『논어』, 「泰伯」 10장, “子曰, ‘好勇疾貧, 亂也, 人而不仁, 疾之已甚, 亂也.’”

한수재 권상하는 이러한 박세당의 해석을 一笑할 거리도 못된다고 혹평하며, 만약 이단 공격이 해롭다면 맹자가 양목을 배격한 것도 해로운 일이나고 반문하였다.

‘공격’으로 보는 說들은 주자가 일체 모두 버렸는데, 지금 박세당이 도리어 탈취하여 자기 견해로 삼았으니, 한 번 웃을 거리도 못 되네. 만약 이단을 공격하는 것이 해가 된다고 한다면, 맹자가 楊墨을 거부한 것도 道에 해가 될 수 있단 말인가.⁴¹⁾

尤庵 학맥의 최좌해 역시 이렇게 해석하면 맹자의 벽이단이 그릇된 일이 되고 만다고 보았고,⁴²⁾ 洛論을 이끈 김원행도 이단을 공격하는 것이 해롭다고 한다면 맹자가 목자를 주자가 육상산을 논척하지 않아야 해롭지 않단 말이나고 반문하며 이는 너무도 사리에 어긋나는 말이라고 지적하였다.⁴³⁾

이로 보면 “이단을 공격하면 해롭다”는 해석은 유가 도통론의 한 핵심인 闢異衛道에 위배되고, 특히 양목을 통렬히 비판한 맹자의 벽이단이 잘못된 행위로 치부되는 큰 맹점에 봉착한다. 이 때문에 소위 탈주자학적 성향을 보이는 학자들조차도 이장을 박세당처럼 해석하지는 않은 듯하다. 다만 구한말 개화파 김윤식이 박세당처럼 해석했는데,⁴⁴⁾ 이는 서구 문물의 수용을 주장하는 개화파의 이념적 입장에서 연유한 견해가 아닐까 생각된다.

40) 正祖, 『弘齋全書』 권122, 「魯論夏箋 1[少啓文臣徐俊輔], 〈爲政篇〉‘子曰攻乎異端章’, “此章之攻字, 以力擊之意解之, 則與人而不仁疾之已甚亂也之意同. 而朱子之必以專治爲釋者, 何歟? 不仁疾亂之訓, 蓋曰, ‘…… 但疾之已甚, 使其人無所容, 則激而爲亂云爾.’ ……”.

41) 權尙夏, 『寒水齋集』 권20, 「書」, 〈答季文[思辨錄辨破時]〉, ‘異端’, “若攻擊之說, 則朱子一皆舍之, 而今世堂反掠以爲己見, 未滿一笑. 如以攻擊異端爲害, 則孟子之距楊墨, 亦可爲害道耶.”

42) 崔左海, 『五書古今註疏講義合纂』, 「論語」, 爲政 16장, “弘錄曰, ‘此章文義, 或以爲攻擊異端則激成其害云, 然則孟子之闢異端爲非矣. ……’”; 金曉東, 앞의 2012 논문, 14면을 보면, 이 글은 諸學者들의 주석, 제자들의 청강록, ‘竊按’과 ‘竊意’로 되어 있는데, 청강록을 기록한 제자는 7~8명으로 그들의 이름 1자를 따서 ‘○錄’으로 시작된다. ‘弘錄’은 내암의 문인 金弘이 기록한 내용이다.

43) 金元行, 『溪湖集』 권12, 「書」, 〈答李慶權〉, “若曰‘攻擊者有害’, 則孟子不辨楊墨晦翁不斥象山, 而後爲無害耶. 此甚害理也.”

44) 金允植, 『雲養集』 권15, 「雜文」, 〈敦化論〉, “是以王者, …… 未嘗以異教而斥之也. …… 孔子曰, ‘攻乎異端攻, 當作攻擊之攻, 斯害也已.’ …… 聖人之忠厚不迫, 範圍廣大, 如天地之無不覆載, 非曲見之所可擬也.”

그밖에 盧相稷과 許採에게 수학한 신성규(1905~1971)는 “이단의 설은 분변하여 밝혀야 옳지, 공격에 힘쓴다면 해가 된다.”고 했는데,⁴⁵⁾ 이는 이단에 대해서는 是非를 분변하여 그 그릇됨을 명백히 밝혀야지 그냥 공격만 하면 해롭다는 뜻이기에,⁴⁶⁾ 박세당의 사유와는 결이 좀 다르다고 판단된다.⁴⁷⁾

Ⅲ. ‘異端’에 대한 견해

‘異端’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논어』 「위정」 16장인데,⁴⁸⁾ 16장에서 공자가 말한 ‘이단’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는 공호이단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해석 포인트이며, 또 ‘이단’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攻’자와 ‘已’자의 풀이도 달라진다.⁴⁹⁾

공호이단장의 ‘이단’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何休와 鄭玄은 ‘他技’,⁵⁰⁾ 何晏은 ‘小道’, 皇侃은 ‘雜書’(諸子百家書), 邢昺은 ‘諸子百家書’ 또는 ‘小道’라 하였고, 주자는 ‘양묵과 같은 것(如楊墨)’이라고 하였다.⁵¹⁾

45) 申晟圭, 『遜庵集』, 「論語講義」, 爲政 16장, “按異端之說, 辨而明之, 可也. 若務攻擊, 斯爲害也.”

46) 최석기, 「遜庵 申晟圭의 『論語講義』 연구」,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5, 159면, 176~177면 참조.

47) 유흔우는 앞의 2017 논문 39~41면에서 攻擊-止설에 대해 “문화전제적이고 패도적이어서 공자의 사상 풍격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였고, 攻擊설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라고 하면서, 근현대 중국학자 何新, 劉兆偉, 李澤厚 傅佩榮을 예로 들어 “많은 현대 주석서들이 이 유형의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48) 그밖에 『孔子家語』 「辯政」에 “子貢問於孔子曰, ‘…… 政在異端乎’”라는 말이 나온다. ‘政在異端乎’의 주석에 “豈爲政之道在於多端乎”라고 했으니, 이에 의하면 『공자가어』의 ‘이단’은 ‘多端’이라는 말이다. 孟冲, 「孔子“攻乎異端”思想新论」, 『管子學刊』, 2014는 『공자가어』 이 부분과 「위정」 16장의 의미가 상통한다고 보고, ‘攻’을 ‘專治’로 ‘已’를 ‘止’로 풀어, 공호이단장을 “專治於各種不同的观点(或者看法), 這種危害就会停止”라고 해석하였다.

49) 許超杰·王园园, 「《论语》“攻乎異端, 斯害也已”解」, 『唐山学院学报』 28, 2015, 65면, “此章爭議之起點在‘攻’字, 然欲解‘攻’之爲義, 要先解‘異端’爲何.”

50) 何休는 『공양전』 文公 20년조에 나오는 ‘他技’에 대해 “他技奇巧, 異端也.”라고 주석하였다. 정현은 『예기』 「대학」의 “斷斷乎無他技” 주석에서 “他技, 異端之技也.”라 하였다.

51) 孟冲, 앞의 2014 논문, 120면, “如汉时何休, 郑玄训作‘它技’, 魏晋何晏训作‘小道’, 南朝梁皇侃训作

또 金昌協 문하의 이현익은 「위정」 16장에 여러 설이 있다고 하면서, “①『집주』가 하나의 설, ②이단을 攻斥하면 해가 된다는 것이 하나의 설, ③이단을 攻斥하면 해가 그친다는 것이 하나의 설, ④이단은 단지 백공중기라는 것이 하나의 설”이라고 하였다.⁵²⁾ 이 가운데 세 가지는 앞서 Ⅱ장에서 언급한 ‘攻’과 ‘已’에 대한 해설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단’에 대한 견해가 『집주』와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단’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他技: 小道: 百家: 百工衆技’이고, 다른 하나는 楊墨老佛과 같은 ‘邪說’이다.⁵³⁾

1. 楊墨老佛류

前漢말 揚雄은 “요순과 문왕의 道로 가는 것은 正道이고, 요순과 문왕의 道로 가지 않는 것은 他道”⁵⁴⁾라고 이분했는데, 범조우와 신안진씨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堯舜, 文武, 周公의 道가 아닌 것, 즉 聖人의 道가 아닌 것은 모두 이단이라고 규정하였다.⁵⁵⁾

범조우는 성인의 도가 아닌 이단의 예시로 楊朱와 墨翟을 거론하였는데, 주자는 『집주』에서 이단은 양목과 같은 것이라는 범조우의 말과 佛氏의 해가 양목보다 심하다는 정자의 말을 인용하였다.

범씨가 “…… 이단은 성인의 道가 아니고 별도로 一端이니, 양주와 목적 같은 이가 이것이다. 그들이 천하를 거느려 無父無君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것을 專治하여 정밀히 하고자 하면 해됨이 심하다.” 하였다. ○정자가 “불씨의 말은 양주와 목적에 비하면 더욱 이치에 가까우니, 이 때문에 그 해가 더 심하다. 學

‘杂书’(诸子百家之书), 宋代朱熹训作‘邪说’, 今人杨伯峻又训作‘不正确的议论’等等.”

52) 李顯益, 『正菴集』 권9, 「雜著」, 〈論語說上〉, 「攻乎異端章」, “此章有數說. 集註是一說, 攻斥異端則爲害是一說, 攻斥異端則害止是一說, 異端只是百工衆技是一說.”

53) 許超杰·王園園, 앞의 2015 논문, 65~66면, “前人對於‘異端’之理解大要有二. 第一, 解‘異端’爲小道. …… 第二, 反于大道之邪說也.”

54) 揚雄, 『揚子法言』 제4, 「問道」, “適堯舜文王者, 爲正道, 非堯舜文王者, 爲他道, 君子正而不他.”

55) 朱熹, 『論孟精義』, 「論語」, 〈爲政〉, “范氏曰, ‘…… 人君之學, 苟不由堯舜文武周孔之道, 皆異端也.’”; 『論語集註大全』, 「爲政」 16장 小註, “新安陳氏曰, ‘…… 凡非聖人之道者, 皆異端也云.’”

耆는 마땅히 음탕한 음악과 美色처럼 멀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츰차츰 그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였다.⁵⁶⁾

따라서 종종 주자가 ‘이단’을 楊墨老佛로 보았다고 단정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주자는 여기서의 ‘이단’이 양묵노불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았다. 그는 공자가 말한 ‘이단’이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양묵과 같다고 했을 뿐이다. 즉 ‘예컨대(如)’나 ‘우선(姑)’ 등의 글자에서 보이듯, 주자는 이단의 예시로 양묵노⁵⁷⁾불을 든 것이다.

당시 소위 ‘이단’은 진실로 그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우선 楊墨으로써 논하자면, 예컨대 묵씨의 無父는 “덕을 어그러뜨리고 예를 어그러뜨린다.”는 (孔子的) 가르침이 진실로 깊이 그를 물리치신 것이다. 양씨의 無君는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윤리를 어지럽힌다.”는 (孔子的) 경계가 또한 이미 깊이 그를 물리치신 것이다.⁵⁸⁾

반드시 楊墨을 지적할 수는 없어서 ‘如’자를 두었다. …… ○본문에서 논한 이단이 비록 딱 양묵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양묵이 본디 공자와 동시대이고, 또 달리 이단으로 지목할 만한 자가 없기에, (朱子가) 범씨의 이 설을 취하여 이 장을 바르게 해석하였다.⁵⁹⁾

그런데 『집주』에서 양묵노불을 이단으로 정확히 지목해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주자가 생각하는 ‘이단’의 함의가 양묵노불과 같이 엄히 배척해야 하는 邪說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56) 『論語集註』, 「爲政」 16장 註, “范氏曰, ‘…… 異端, 非聖人之道, 而別爲一端, 如楊墨, 是也. 其率天下, 至於無父無君, 專治而欲精之, 爲害甚矣.’ ○程子曰, ‘佛氏之言, 比之楊墨, 尤爲近理, 所以其害爲尤甚. 學者, 當如淫聲美色以遠之, 不爾, 則駸駸然入於其中矣.’”

57) 『論語集註大全』, 「爲政」 16장 小註, “問 ‘何以只言佛, 而不及老?’ 朱子曰, ‘老, 便是楊氏, 孟子闢楊, 便是闢老. ……’”

58) 朱熹, 『四書或問』, 「論語」, 〈爲政〉, “當時所謂異端, 固未有以見其爲誰氏. 姑以楊墨論之, 如墨氏之無父, 則孝悌悖禮之訓, 固以深闢之矣. 楊氏之無君, 則潔身亂倫之戒, 又已深闢之矣.”

59) 朴文鎬, 『壺山集』, 「論語集註詳說」, 爲政 16장, “不可必其指楊墨, 故下如字. …… ○本文所論異端, 雖未知的指楊墨, 然楊墨既與孔子同時, 且他無可以異端目之者, 故取范氏此說, 以作此章之正釋.”

전국시대에 맹자가 양무를 無君無父로 철저히 비난했기에 양무는 이단의 대명사가 되었고, 당말송초 신유학과 불교 간 사상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했기에 이로부터 노불은 양목보다 더한 이단으로 맹렬히 비판받았다. 따라서 그 동안 유학의 도통론에서 늘 운위되던 이단은 바로 양목노불이었다.

다만 공자 당대에는 양목노불이 이단으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주지하다시피 불교는 아직 중국에 전래되지도 않았고, 老子는 공자가 찾아뵈고 禮를 물은 대상이었다고 하니 직접 이단으로 지목하기는 어려웠을 듯하며,⁶⁰⁾ 양목 역시 공자 당대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했어도 그 세력이 미약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산진씨가 “‘이단’이라는 명칭은 여기에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공자께서 가리키신 바가 누구인지는 모른다. 노담, 양주, 목적은 모두 공자와 동시대인데, 다만 洙泗의 가르침이 바야흐로 밝아서 그들의 說이 제멋대로 퍼지지는 못했다. ……” 하였다. (중략) 신안진씨가 “공자 시대에는 양주가 아직 제멋대로 퍼지지는 못했다(未肆). 그래서 『집주』에서 ‘如’자 하나를 두었다. ……” 하였다.⁶¹⁾

서산진씨가 노자뿐 아니라 양목도 모두 공자와 동시대 사람으로 본 것은 문제가 있지만,⁶²⁾ 공자 당대에 양목의 설이 未肆했다는 데는 서산진씨와 신안진씨의 생각이 동일하였다. 조선 후기 학자들도 당색을 불문하고 공자 당시에는 노담과 양목의 설이 未肆했다고 보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예컨대 남인의 이상정, 노론의 송시열 기정진 김평묵, 정조대왕이 그러하였다.

양목이 공자의 시대에 이미 있었으나 다만 그 설이 未肆하였다. 맹자 시대에 이르러서는 익히는 자가 많아 해가 더욱 심하였기에 물리침이 매우 엄했던 것

60) 『맹자』에도 노자나 장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61) 『論語集註大全』, 「爲政」 16장 小註, “西山眞氏曰, ‘異端之名, 始見於此, 孔子所指, 未知爲誰. 老聃楊朱墨翟, 皆孔子同時, 特以洙泗之教方明, 其說未得肆耳. ……’ (中略) 新安陳氏曰, ‘孔子之時, 楊朱未肆, 故集註下一如字. ……’”

62) 大全 小註에서 胡氏는 양주가 노담과 같은 시기에 살았고 목적은 양주 이전에 존재했다고 하였다. 오늘날에는 대개 목적은 공자 사후에 활동한 인물이며 양주는 전국시대 초기 사람으로 보지만, 조선시대에는 서산진씨나 호씨처럼 말하는 학자들이 많았다.

이다.⁶³⁾

공자 시대에 이미 ‘攻乎異端’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들의 설이 매우 미미하여 이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이단이 그때는 심하게 퍼지지는 않아서 사람들이 그 해를 알지 못했기에 ‘斯害也已’라고 하셨다.

(중암 김평묵의 말) 대개 공자 시대에는 이단이 처음 일어나 아직 성행하지 않아, …… 만일 이단이 지극히 성행하여 仁義가 막힐 지경이었다면, 어찌 다만 “專治한 이후에 해가 된다.”고 하셨겠는가.⁶⁴⁾

楊朱의 무리가 공자 당시에는 감히 제멋대로 횡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단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왔으니, 이는 양주의 폐해가 無父無君에 이른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朱 선생이 『논어집주』에서 程氏의 설을 대서특필한 것이니, 대개 夫子의 은미한 뜻을 발명한 것이다.⁶⁵⁾

뿐만 아니라 소론의 윤기도 당시는 노담과 양묵의 설이 未肆하니 공자가 가리키는 이단이 과연 누구인지 의문스러워 하면서, 그때는 이단의 해악을 그리 걱정할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공호이단장을 말씀하셨으니 공자께서 후세를 위한 염려가 깊다고 하였다. 김창협에게 수학한 松巖 李載亨의 문인인 이원배(1745~1802)는 성현이 이단을 엄히 물리침은 맹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이단에 대해 공자와 맹자의 語氣가 다른 것은 당대 이단의 盛·未盛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⁶⁶⁾

63) 李象靖, 『大山集』 권36, 「書」, 〈答柳天瑞問目[論語]〉, ‘攻乎異端章’, “楊墨在孔子時已有, 但其說未肆. 至孟子時, 則習之者衆, 而爲害益甚, 故闢之甚嚴.”

64) 宋時烈, 『宋子大全』 권101, 「書」, 〈答鄭景由[庚申八月二十五日]〉, “孔子之時, 已有攻乎異端之說. 然其時, 則其說甚微, 而不足爲異端也.”; 奇正鎮, 『蘆沙集』 권13, 「書」, 〈答崔元則語孟問目〉, “異端, 其時未甚肆, 人不知其害, 故曰斯害也已.”; 柳重教, 『省齋集』 권4, 「往復雜稿」, 〈上重菴先生[戊午]〉, “蓋孔子之時, 異端始起而未熾, 想其時或有不知其爲害, …… 若異端極熾, 而仁義至於充塞, 則豈但曰專治而後爲害哉.”

65) 正祖, 『弘齋全書』 권130, 「故寔 2」, 〈朱子大全 1〉, “楊朱之徒, 在夫子之時, 不敢肆行. 而異端之稱, 始於此者, 非指楊朱之弊, 至於無父無君者而言也. 故朱先生於論語集註, 大書程氏之說, 蓋所以發明夫子之微旨也.”

66) 尹愔, 『無名子集: 文稿』 제1책, 「文」, 〈闢異端說〉, “當是時, 異端之害, 似若有不甚可憂者, 而聖人之言如此, 其爲後世慮, 至深遠矣.”; 李元培, 『龜巖集』 권14, 「日錄辛亥」, “曰, ‘民意, 此乃聖賢言語氣

또 성호는 『논어질서』에서 이단을 揚墨之類와 같은 것이라 하되, 맹자 때에 양묵의禍가 심했으니 夫子 때도 반드시 그 조짐이 있었을 것이기에, 장차 無君無父에 이를 줄 성인께서 일찍 아시고 경계한 것이라고 하였다.⁶⁷⁾

이처럼 조선에서는 공자 당대에 노담과 양묵의 설이 아직 확산되지 않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런 견해를 취한 학자들은 「위정」 16장을 이해하기를, 未肆했기에 공자가 ‘해롭다’ 정도로만 말하는 데 그쳤다고 보거나, 아니면 未肆했지만 성인이 후세를 염려하여 미리 경계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노담과 양묵이 未肆했다고 보는 학자들 중 일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단은 노담과 양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안은 그것을 ‘小道’라 하였고, 신안진씨는 그것을 ‘鄉原’이라고 규정하였다.

2. 小道

何晏은 『論語集解』에서 이단을 善道에 대비되는 말로 보았다. 『논어집해』를 주해한 北宋의 邢昺은 『論語正義』에서 善道에 대비되는 이단을 諸子百家로 규정하였고, 皇侃 역시 『論語義疏』에서 이단을 제자백가로 여겼다.

[주]攻은 治다. 善道는 統이 있는지라 길은 달라도 귀착지가 같지만, 이단은 귀착지가 같지 않다. [소]○『정의』에서 “이 장은 사람들에게 잡학을 하지 말도록 금한 것이다. 攻은 治다. 이단은 제자백가서를 일컫는다. ……” 하였다. [소]○『정의』에서 “…… 이단의 글은 요순의 도를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 仁義를 해치고 험뜯으니 이것이 귀착지가 같지 않은 것이다. ……” 하였다.⁶⁸⁾

善道는 바로 5經의 正典이다. ‘統이 있다’에서 ‘統’은 ‘本’이니, 모두 善道를

像之不同處, 而亦異端之有盛不盛也. 孔子時惟有老子, 而去聖人爲不遠, 故以聖人之辭不迫切, 論未盛之異端, 故恐當如此. ……”

67) 李瀾, 『論語疾書』, 爲政 16장, “異端, 如揚墨之類. 孟子時其禍如許, 則夫子時必有其兆矣. …… 將至於無君無父, 故聖人早知, 而預戒之.”

68) 『論語注疏』, 「爲政」 16장, “[注]攻, 治也. 善道有統, 故殊塗而同歸, 異端不同歸也.” “[疏]○正義曰, ‘此章禁人雜學. 攻, 治也. 異端, 謂諸子百家書. ……’ “[疏]○正義曰, ‘…… 異端之書, 則或秕糠堯舜, 戕毀仁義, 是不同歸也. ……’”

근본으로 삼는 것을 이른다. …… 제자백가는 모두 허망하고 이치가不善하여 교화에 無益하기에 귀착지가 같지 않은 것이다.⁶⁹⁾

그런데 황간은 “제자백가는 모두 허망하고 이치가不善하다.” 하고, 형병은 “이단은 요순의 도를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 仁義를 해친다.”고 했으니, 이들이 말하는 이단 곧 제자백가는 언뜻 『집주』에서 말하는 “聖人の 道가 아닌 별도의 一端”과 유사하게 보인다.⁷⁰⁾

하지만 주자가 이단으로 예시한 양묵과 불씨는 邪說에 해당하는 반면, 하안과 형병이 이단으로 규정한 제자백가는 ‘작은 도[小道]’ 째에 해당한다. 이는 「자장」편 小道장에 대한 이들의 해석에서 드러난다.

자하가 “비록 小道라도 반드시 볼 만한 것이 있으나 먼 데에 이르면 통하지 않을까 두렵다. 이 때문에 君子가 하지 않는다.” 하였다.

[주]小道는 이단을 일컫는다. [소]○『정의』에서 “이 장은 사람들에게 大道와 正典을 배우도록 권면한 것이다. 소도는 異端의 설과 百家의 말을 일컫는다. ……” 하였다.⁷¹⁾

하안은 자하가 언급한 ‘小道’를 이단이라 명시하였고, 형병은 ‘異端之說과 百家語’라고 해설하였다. 이를 「위정」 16장 주석과 연계해보면, 하안과 형병 및 황간에게는 이단이 곧 小道요 百家의 衆技인 셈이다. 또한 何休(129~182)와 鄭玄(127~200)이 이단으로 규정한 ‘다른 기예(他技)’도 ‘百家衆技’와 의미가 상통한다고 여겨진다.

주자는 『집주』에서 小道를 農圃·醫·卜 등속의 百家衆技로 보았지만, 그러나 이단과는 전혀 연관 짓지 않았다.

小道는 農圃,醫卜 등속이다. 泥는 不通이다. ○양씨가 “百家의 衆技는 이목구

69) 皇侃, 『論語義疏』, 「爲政」 16장 註, “善道, 卽五經正典也. 有統統, 本也, 謂皆以善道爲本也. …… 諸子百家, 並是虛妄, 其理不善, 無益教化, 故是不同歸也.”

70) 한편, 어유봉(1672~1744)은 ‘이단’은 제자백가에 양묵을 섞어서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魚有鳳, 『論語詳說』, 爲政 16장, “異端者, 雜楊墨諸乎百家而言之.”).

71) 『論語注疏』, 「子張」 4장, “經子夏曰, ‘雖小道, 必有可觀者焉, 致遠恐泥. 是以君子不爲也.’” [注]小道謂異端. [疏]○正義曰, “此章勉人學爲大道正典也. 小道謂異端之說百家語也. ……”

비와 같아서 모두 밝은 바가 있으나 상통하지 못하니, 볼 만한 것이 없지는 않으나 먼 데에 이르면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하지 않는다.” 하였다.⁷²⁾

주자의 제자 黃幹도 소도는 성인의 도에 합치되지만 이단은 성인의 도에 위배되어 서로 다른 것인데, 작은 것은 그래도 가까운 데는 베풀 수 있지만 이단은 잠시라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⁷³⁾

그렇지만 조선에서도 이단을 ‘小道’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일찍이 포저 조익(1579~1655)이 이단을 ‘소도’로 보았고,⁷⁴⁾ 농암 김창협(1651~1708)은 포저의 견해를 일설로 채택해도 무방하다고 여겼다.⁷⁵⁾

공자 시대에는 아직 후세 楊墨釋老의 學者 같은 이단이 없었다. 가령 있었다면 성인께서 마땅히 鄭聲과 佞人처럼 물리쳐 끊으셨을 테지, 어찌 다만 ‘攻하면 해롭다’고만 하셨겠는가. 그런즉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아마도 후세에서 말하는 이단 같은 것은 아닌 듯하다. 대개 천하의 事業은 儒者의 학문 외에도 多端하다. 예컨대 樊遲가 稼圃를 배우고자 청한 것과 子夏가 ‘小道라도 볼 만하다’고 말한 것이 이것이다. 여기서의 이단은 아마도 이런 부류를 가리키는 듯하다. 이와 같은 부류는 알아도 되지만, 다만 그것을 專治하면 正學에 방해됨이 있다.⁷⁶⁾

72) 『論語集註』, 「子張」 4장 註, “小道, 如農圃醫卜之屬. 泥, 不通也. ○楊氏曰, ‘百家衆技, 猶耳目口鼻, 皆有所明, 而不能相通, 非無可觀也, 致遠則泥矣. 故君子不爲也.’”; 大全 小註에 의하면, 주자는 百家의 술한 기에도 각각 하나의 이치가 있으며 모두 세상에 쓰이니 없어서는 안 되기에 볼 만한 것이지만, 혹 이것에 능하면 혹 저것에는 능하지 못하니, 修己治人하는 군자의 大道에는 통할 수 없다고 하였다.

73) 『論語集註大全』, 「子張」 4장 小註, “勉齋黃氏曰, ‘…… 小道, 合聖人之道, 而小者也, 異端, 違聖人之道, 而異者也. 小者, 猶可以施之近, 異端, 不可以頃刻施也. ……’”

74) 정규한은 “조익과 김창협이 ‘攻’자를 공격의 뜻으로 보아, 이단을 극력 攻斥할 필요는 없고 우리道を 밝게 닦으면 世人들이 우리 도를 존중하여 이단이 저절로 그칠 것으로 보았다.”(鄭奎漢, 『華山集』 권3, 「書」〈答鄭亨甫論孟疑義〉)고 하였지만, 이는 조익의 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75) 李顯益, 『正菴集』 권9, 「雜著」, 〈論語說上〉, “攻乎異端章”, “百工衆技之說, 趙浦渚如此看, 農巖謂不妨作一義.”; 金昌協, 『農巖集』 권17, 「書」, 〈答金叔夏卿戊寅〉, “浦渚先生經說, 乍看極有警發人處. …… 如攻乎異端一說, 區區蓋嘗妄爲此論, 而今適相符, 尤幸尤幸. 雖朱夫子定訓, 不可輕議, 而要之此當備一說也.”

76) 趙翼, 『浦渚遺集』, 「論語淺說」, 爲政 16장, “孔子之時, 未有異端如後世楊墨釋老之學者. 假使有之,

이현일의 제자 권구(1672~1749)도 공자 때는 불씨와 양목이 없었고 노자의 학설은 만연하지 못했으니 소위 이단은 百工伎藝⁷⁷⁾를 일컫는 것 같다고 하였다.⁷⁸⁾ 권득기(1570~1622)는 이단의 범위를 좀 더 넓혀, 춘추시대 관중과晏子, 전국시대 신불해와 한비자, 번지가 농사를 배우겠다고 청한 것까지 모두 이단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⁷⁹⁾

강화학파의 시조 정제두(1649~1736)는 楊墨, 老佛, 功利, 霸者 등은 근본을 해치기 때문에 ‘邪說亂道’라고 해야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해롭다’고만 말해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단은 醫巫卜筮와 같은 方技小術이며, 이 章의 의미는 ‘玩物喪志’의 뜻과 같다고 하였다.⁸⁰⁾

정제두의 이러한 해석은 주자의 三傳제자인 勿齋 程若庸의 견해와 매우 상반된다. 정물재는 “百家衆技는 小道요, 邪說誠行은 異端”이라 했는데, 이현익은 정물재의分別이 정예롭다고 하면서 공호이단장 해석은 『집주』에서 말한 바를 바꿀 수 없다고 하였다.⁸¹⁾

성호 이익은 「자장」편 小道장이 「위정」편 攻乎異端장을 부연한 것이라고 보았다.

則聖人當斥絕之如鄭聲佞人也，豈但言攻則斯害而已也。然則此所謂異端，恐非如後世所謂異端也。蓋天下之事業，儒者學問之外，亦多端焉，如樊遲請學稼圃，子夏所謂小道可觀者，是已。此異端，恐指此類也。如此之類，知之亦可，但專治之，則有妨於正學也。”

77) 鄭介淸은 ‘百家衆技’를 申韓·黃老·節義·淸談 등으로 보았다(黃赫, 『己丑錄下』, 〈東漢節義晉宋淸談說序〉 참조). 『집주』에서 말한 ‘百家衆技’는 農圃·醫·卜 등속이므로, 조선에서는 이를 ‘百工衆技’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78) 權渠, 『屏谷集』 권10, 「附錄」, 〈慕山瑣錄(門人權憲撰)〉, “但夫子時無佛與楊墨, 老則不甚漫延, 語中元無及老處, 所謂異端, 似是百工伎藝之謂.”

79) 權得己, 『晚悔集』, 「論語僭義」, 爲政 16장, “若已如楊墨之充塞仁義, 則孔子闢之之辭, 不但云云而已也。又如戰國世申韓刑名, 富國強兵之術, 春秋管晏之徒, 或有慕之者, 雖其說粗淺, 不足爲後世言, 然在當時俱可謂之異端。又如樊遲請學稼圃, 亦可謂異端.”; 한영대, 「晚悔 權得己의 학술정신과 『孟子僭疑』」, 『韓國思想史學』 55, 한국사상사학회, 2017, 50·73면에서 “권득기의 『맹자참의』는 주자의 견해에 얼마이지 않고, 상당히 여유롭고 자유롭게 『맹자』를 읽어내었다.”고 하였다.

80) 鄭齊斗, 『霞谷集』, 「論語說」, 爲政 16장, “攻乎異端, 異端者, 謂方技小術, 如醫巫卜筮之倫, 是也。……如程子所言玩物喪志之類, 是其意也。如楊墨老釋功利伯者之流, ……是可曰邪說亂道, 不但曰異端而已。是當明其所以差, 而闢其所爲行者也, 不但曰攻之斯害而已。”

81) 李顯益, 『正菴集』 권9, 「雜著」, 〈論語說上〉, “攻乎異端章, “而以百工衆技爲異端, 亦異端字太重. 程勿齋謂百家衆技, 是曰小道, 邪說誠行, 是曰異端, 此似分別精矣. 然則此章之義, 只是集註所說, 移易不得.”

그는 공호이단장이 비록 이단을 전공하는 것은 금했으나 엄중히 배척하는 것은 아니므로, “小道라도 볼만한 것이 있다”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⁸²⁾ 윤광심(1751~1817)도 ‘斯害也已’의 語意가 寬緩하여 이단을 심히 배척하는 말이 아닌 듯하므로, 여기서의 이단은 성인에게 심각하게 배치되지는 않는 ‘소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⁸³⁾

정약용(1762~1836) 또한 대동소이한 주장을 펼쳤다. 다산 역시 “孔子 당시에는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지 않았고 노자는 비록 있었지만 그 설이 현저하지 않았으니 이단이 어찌 佛老를 가리키겠냐”고 반문하고, “양목노불의 죄악이 극대하니 어찌 專治를 기다린 뒤에야 해가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여기서의 이단은 양목노불 같은 오늘날의 이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아울러 “오늘날의 이단을 治하면 이는 亂賊이니 비단 ‘斯害’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데, ‘斯害也已’는 가볍게 금지하는 것이지 크게 금하는 것이 아니니, 결코 오늘날의 이단일 수 없다.”고 단정지었다.⁸⁴⁾

따라서 다산은 여기서의 이단은 兵·農學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는, 그 근거로 번지가 농사 배우기를 청하자 공자가 그를 小人이라 하였고, 위영공이 陣法을 묻자 공자가 모른다고 답변한 내용을 거론하였다. 다산은 兵·農學은 經世의 실무이므로 알아야 하지만, 거기에 專治하면 性命學에 해롭기 때문에 專治해서는

82) 李漢, 『星湖僿說』 권18, 「經史門」, 〈朱子問學〉, “子夏衍之曰, ‘雖小道, 必有可觀, 致遠恐泥.’ 此後學之所當遵守勿失也.”; 권14, 「人事門」, 〈異端〉, “子曰, ‘攻乎異端, 斯害也已.’ 雖禁其專治, 而未嘗排去甚嚴, 猶在小道可觀之內也.”; 『성호사설』에 나오는 이 내용은 성호의 『논어질서』와는 다르다. 『논어질서』는 『집주』처럼 이단을 揚墨之類로 보았다. 권문봉은 「성호의 『논어』 주석 일고찰-『논어질서』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19,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357면에서 “그의 『논어』 주석에서는 다른 〈疾書〉보다 실학적 경학관이 적게 나타나 있다.” 하였고, 김영호는 「李星湖의 論語說考」, 『동양문화연구』 1, 영산대 동양문화연구원, 2007, 80면에서 “다만 諸經의 『질서』가 모두…… 주자라는 큰 울타리 밖을 벗어나지 못함도 지적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논어질서』 공호이단장은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듯하다.

83) 尹光心, 『剩書』, 「論語說略」, 爲政 16장, “攻乎異端, 集註如楊墨是也, 此恐未必然也. 若其無父無君如二氏之爲者, 則何待專治而後爲害. 且斯害也已之云者, 語意寬緩, 却不似深闢之辭, 此又可疑. 蓋此言異端, 非必大段背馳於聖人者, 只如子夏所謂小道是也.”

84) 丁若鏞, 『論語古今註』, 爲政 16장, “○駁曰, ‘非也. 孔子之時, 老莊楊墨, 未立門戶. …… 若此異端, 爲今之所謂異端, 則治此事者爲亂賊, 不可但曰斯害也. …… 斯害也已者, 輕輕說也, 輕輕禁之, 非大聲疾言以禁之也, 異端 豈今之所謂異端乎. ……’ (中略) [質疑] ……○楊墨之無父無君, 老佛之慢天侮聖, 罪大惡極, 神人所憤, 豈待專治而後有害. 異端之非今之異端, 明矣.”

안 된다고 하였다.

논박하기를 “…… 번지가 농사를 배우고자 청하니 공자께서 그를 가리켜 小人이라 하시고, 위영공이 공자에게 진법을 묻자 ‘軍旅의 일은 일찍이 배우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대저 兵·農의 학문 역시 經世의 실무이니 군자가 알지 않아서는 안 되지만, 배우는 자가 이 일을 專治하면 그 身心과 性命의 學에 끝내 약간의 害가 있다. 이것이 夫子께서 폐단을 가볍게 말씀하여 두루 통하고자 하되 專治하지는 않으려 하신 까닭이다. 소위 이단은 이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 ……” 하였다.⁸⁵⁾

백호 윤휴(1617~1680)도 이단을 ‘小技, 小藝, 小道’로 보아, “이는 우리 儒道의 한 가지 일로서 몰라서는 안 되지만, 專治하여 정밀히 하고자 하면 大道에 해롭다.” 하였고, “양묵노불류를 이단으로 본다면 專治를 기다린 뒤에야 해롭겠느냐”는 반문도 아울러 제기하였다.⁸⁶⁾

19세기말 한주학과 역시 이러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진상은 “불노양묵은 略治만 하여도 害가 있는데 어찌 專治를 기다린 뒤에 해롭겠는가” 반문하면서, 여기서의 이단은 醫藥, 卜筮, 兵農, 律曆 등의 百家衆技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제자 곽종석도 스승의 설을 그대로 따랐고, 또 다른 문인 장석영도 “양묵은 드러나지 않았고, 불씨는 유입되지 않았으며, 노자는 있었지만 공자가 禮를 물은 데다 당시에는 이단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니, 여기서의 이단은 百家衆技류”라고 하였다.⁸⁷⁾

85) 丁若鏞, 『論語古今註』, 爲政 16장, “○駁曰, ‘…… 樊遲請學稼, 孔子斥之爲小人, 衛靈公問陳於孔子, 對曰軍旅之事未嘗學. 夫兵農之學, 亦經世之實務, 君子不可以不知, 然學者專治此事, 其於身心性命之學 終有些害, 此夫子所以輕輕說弊, 欲其旁通, 不欲其專治也. 所謂異端不過如斯. ……”

86) 尹鑄, 『白湖全書』, 「讀書記-讀尙書」, 無逸 1장, “秦誓云斷斷無他技, 何休以他技爲異端奇巧. 蓋所謂異端, 非必如楊墨老佛之類, 小技小藝, 若子夏所謂小道必有可觀者, 是也. 然則孔子所謂攻乎異端斯害也已, 蓋謂小技小道, 固吾道中一事也, 固不可不知, 若專治而欲精之, 則反害乎大道云爾. 若曰異端如楊墨佛老之類, 則又豈待專治而爲害也.”

87) 李震相, 『寒洲全書』, 「論語筭義」, 爲政 16장, “異端, 恐是指百家衆技之流, 如醫藥卜筮兵農律曆等事, 是也. …… 若佛老楊墨, 則略治之 已有害, 何待專治然後爲害耶. …… 孔子之時, 佛老楊墨之說未熾, 不至於害道, 故夫子未嘗一言及之, 則此異端之非指楊墨, 明矣.”; 郭鍾錫, 『茶田經義答問』, 「論語」, 爲政 16장, “孔子時, 別無異端之名, 恐只謂兵農醫卜律曆之類. ……[答權聖吉]; 郭鍾錫, 『俛宇集』 권113, 「書」, 〈答琴胤三[錫命○論語疑義○甲辰]〉, “此與小道之致遠泥混, 作一意看, 恐無

이로 보면 이단을 小道로 규정하는 조선 학자들에게는 대체로 세 가지 사유가 전제되어 있다. 첫째, 공자 당대에는 양목노불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확산되지 않았기에 공자가 가리키는 이단은 양목노불이 아니라는 논리, 둘째, 이단이 양목노불 같은 邪說이라면 엄히 배척해야 하니 어찌 專治를 기다린 뒤에야 해롭겠느냐는 반문, 셋째, 따라서 이 ‘이단’은 邪說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가벼운 의미라는 추론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단을 소도로 보는 학자들은 주로 남인 학통에 속하며⁸⁸⁾ 주자설에 비판적이거나 소위 실학적 성향을 띠고 있다. 이들은 ‘攻’을 ‘治’로 본 古註를 계승한 『집주』의 ‘專治’설은 수용하되, 이단은 略治하는 것도 안 된다는 小註의 주자설 대신 이단이 小道라는 하안의 古註를 따랐다.

이단을 소도로 보면, 專治는害가 되니 해서는 안 되지만 略治는 해도 되기에, 專治설에 내포된 의혹을 상쇄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이단을 邪說亂道와 구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단에 대한 비판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만다.

3. 鄉原 이하

공호이단장에는 古註부터 新註에 이르기까지 聖人の道가 아닌 것은 모두 이단이라는 포괄적 인식이 존재하였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학자들은 이단의 범위를 매우 넓게 보았다.

예컨대 노론 학맥의 오희상(1763~1833)은 비단 양목뿐 아니라 卜筮·醫·農 등 일체의 俗學으로 무릇 聖人の道가 아닌 것은 다 이단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의 문인인 조병덕(1800~1870)도 양목노불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聖門의 가르침에 위반되는 것은 모두 이단이라고 하였다.⁸⁹⁾

妨.”; 張錫英, 『晦堂集』, 「論語記疑」, 爲政 16장, “蓋孔子之時, 初無異端楊墨之說未著, 佛氏之教不入, 雖有老子, 而孔子爲之問禮, 則在當時, 又非異端之著見者也. 然則所謂異端, 特非聖人之教, 而如百家衆技之流, 便可去略理會, 而不可專治者也.”

88) 화서학과 중암 김평묵도 한때 이단을 ‘小道’로 보았지만, 뒤에는 생각을 바꾸었다.(柳重教, 『省齋集』 권4, 「往復雜稿」, 〈上重菴先生[戊午]〉 참조.)

89) 吳熙常, 『老洲集』, 「讀書隨記-論語」, 爲政 16장, “竊嘗思之, 此所謂異端, 當濶看, 非直楊墨而已, 如卜筮農醫如蔡墨歧伯許行之類, 一切俗學, 凡非聖人之道者, 皆在其中.”; 趙秉德, 『肅齋集』 권9,

한편, 혹자는 공자 당대에 이단이 未肆했다는 데서 출발하여, 『논어』 안에서 당시 공자가 비판적으로 본 대상을 골라내어 그들을 이단으로 지목하였다. ‘鄉原’이나 ‘怪力亂神’ 또는 ‘장저·걸익 같은 隱者’들을 이단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신안진씨는 공자 당대에 양목은 未肆하였고, 노담은 공자가 예를 물은 대상일 뿐더러 莊子에 의해 비로소 허무의 학설을 낸 자가 되었으니, 이때는 노담과 양목이 이단이 아니라, 공자가 매우 비판한 향원이 이단이라고 하였다.

신안진씨가 “공자 시대에 양주는 未肆하므로 『집주』에서 ‘如’자 하나를 두었다. 그렇다면 이단은 무엇을 지적하신 것인가? 공자께서 ‘향원은 德의 賊’이라 하였고, 맹자는 ‘스스로 옳다고 여기나 요순의 도에는 함께 들어갈 수 없다’ 하셨으니, 향원 역시 이단이다. 노담은 바로 동시대이고, 공자가 禮에 대하여 ‘내 노담에게 들었다’고 하셨으니, 노담은 당시에는 아직 그를 이단으로 지목할 수 없었다. …… 장자가 노담을 조상으로 삼은 뒤 비로소 노자가 허무 학설의 조상이 되어 이단이 됨을 면할 수 없었다. ……” 하였다.⁹⁰⁾

김장생의 후손인 김정묵(1739~1799)은 신안진씨의 ‘如’자 설명에 의혹을 제기하며 노담을 이단으로 지목할 수 없다는 말에 비판적이었고, 노자가 장자에 의해 비로소 허무 학설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에는 더더욱 비판적이었다.⁹¹⁾ 하지만 정조조 이현묵도 신안진씨와 생각이 유사하였다.

이현묵이 대답하기를 “夫子 때는 노담과 양목의 道가 오히려 널리 퍼지지 않았습시다. 이 장에서 가리키는 이단은 대개 향원 같은 부류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좀 느슨한 것입니다. ……” 하였다.⁹²⁾

「書」, 〈答李景學〉, “大抵此章, 前輩所論不少, 不可草草了當. 盖異端, 非必皆楊墨老佛之謂, 凡畔背於聖門之教者, 皆可謂之異端.”

90) 『論語集註大全』, 「爲政」 16장 小註, “新安陳氏曰, ‘孔子之時, 楊朱未肆, 故集註下一如字. 然則異端, 何所指乎? 孔子謂鄉原德之賊, 孟子謂其自以爲是, 而不可與入堯舜之道, 則鄉原, 亦異端也. 老聃正同時, 而孔子於禮曰, 吾聞諸老聃, 則老聃在當時, 未可以異端目之. …… 蒙莊出而祖老氏, 自此以後, 始爲虛無之祖, 而爲異端, 不可辭矣. ……”

91) 金正默, 『過齋遺稿』, 「論語辨答補遺」, 爲政 16장, 「小註新安陳氏說」, “按如字, 是舉一包衆之辭, 而陳氏之說如此, 可疑. 況所謂老聃當時未可以異端目云者, 雖亦未肆之謂, 而大爲語病, 若以下文始爲虛無祖之說觀之, 則恐又不但爲語病而已.”

김귀주(1740~1786)는 향원을 이단에 포함시켰지만, 신안진씨와는 또 다른 특이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공자 당대에 이단이 未肆했다고 보지 않고 도리어 이단이 진실로 많았다면서, 그 예로 노자와 향원은 물론 晨門·荷簣 부류와 같은 은자들까지 아울러 이단으로 취급하였다.

聖인이 正道를 염려하시면 의당 미연에 방지해야지, 어찌 目前에 아직 심하게 횡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선 그곳이 말씀하여 無窮한 폐단을 열어두겠는가. 하물며 夫子 때는 진실로 이단이 많았음에랴! 예컨대 老氏, 鄉愿, 晨門·荷簣 부류가 모두 우리 儒道가 아니다. 그러므로 鄉愿에 대해서는 ‘德의 賊’이라 하였고, 原壤에게는 지팡이로 정강이를 치셨으며, 삼태기를 멘 무리들에 대해서는 윤리를 어지럽힌다고 배척하셨으니, 그 말씀이 일찍이 엄정하고 통절하지 않음이 없으셨다.⁹³⁾

식산 이만부(1664~1732)는 특히 은자를 이단으로 거론하여, “성인의 도 아닌 것이 이단이니 長沮·桀溺·接輿 무리들도 이단의 부류 아님이 없지만, 단지 그들은 자신의 道를 自守할 뿐이어서 사람들에게 해가 미치지 않았기에, 당시 ‘이단’이라는 명칭은 처음 등장했으나 이단의 사람이 있는 줄은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⁹⁴⁾

사실 『논어』와 『맹자』를 보면, 공자가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한 존재는 향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는 향원을 ‘德의 賊’이라 치부하며, 그들이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들르지 않아도 유감이 없다고 하였다.⁹⁵⁾ 그런 측면에서 양목노불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未肆했던 당대에 공자가 향원을 염두에 두고 공호이단장을 발언했을 가능성은

92) 正祖, 『弘齋全書』 권71, 「經史講義 8 ○論語 1」, 〈爲政〉, “黷戔對, ‘夫子之時, 老聃楊墨之道, 猶未肆焉。此章所指異端, 蓋如鄉愿之流, 是也。故其辭少緩。……’”

93) 金龜柱, 『經書笥錄』, 「論語」, 爲政 16장, “則聖人慮患正, 宜防於未然, 何可以目前之未甚肆行, 而姑爲緩辭以啓無窮之弊哉。況夫子之時, 固多異端! 如老氏鄉愿晨門荷簣之流, 皆非吾儒之道也。故於鄉愿, 則稱德之賊, 於原壤, 則以杖叩脛, 於荷篠之徒, 則斥以亂倫, 其爲言未嘗不嚴正痛切。”

94) 李萬敷, 『息山全書』, 「論語講目」, 爲政 16장, “異端之名始見, 而當時未見有異端之人。集註以楊墨言之者, 以楊墨同時故也。凡非聖人之道曰異端, 則長沮桀溺楚狂接輿之倫, 亦莫非異端者流, 而特其道自守而已, 害不及於人也。”

95) 『논어』, 「陽貨」 13장, “子曰, 鄉原, 德之賊也。”; 『맹자』, 「盡心下」 37장, “孔子曰, 過我門而不入我室, 我不憾焉者, 其惟鄉原乎。鄉原, 德之賊也。曰何如, 斯可謂之鄉原矣。’曰, ‘何以是嚚嚚也, 言不顧行, 行不顧言, …… 闔然媚於世也者, 是鄉原也。”

충분하다. 다만 향원은 행위규범 측면에서 似而非 假君子에 해당하지, 어떤 설을 주장하거나 정립한 一家 내지 一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원’을 이단으로 규정하면, 이단의 설을 학습 내지 정밀하게 안다는 의미의 ‘攻=(專)治’와 어울리지 않는 단점이 있다.

장저·결익 등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점이 없지 않다. 『논어』에는 장저·결익 같은 隱者가 7~8명 나온다. 儀仗의 封人, 微生畝, 石門의 문지기(晨門), 삼태기를 메고 가는 자(荷蕢), 초나라 狂人 接輿, 長沮와 桀溺, 지팡이로 삼태기를 멘 丈人이 그들이다.⁹⁶⁾

이들은 혼란한 춘추시대에 은거하지 않고 천하를 周遊하면서 세상을 구제하려는 공자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공자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은거는 隨時處中이 아니라 絕人避世식 은거이기에 大倫의 하나인 君臣의 의리를 폐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김귀주의 말처럼 亂倫 측면에서 보면 그들을 이단으로 지목할 수도 있다. 다만 이들이 비록 처세의 방식은 다르지만 대개 賢德한 은자들이고⁹⁷⁾ 또 이만부의 말처럼 自守할 뿐이니, 공자가 과연 세상에 해가 되는 이단이라고까지 몰아붙였을지는 의문이다.

연재 송병선(1836~1905)은 여기서의 이단은 양목노불이 아닌 怪力亂神 부류라고 하였다.⁹⁸⁾ 앞서 장횡거는 이단을 공격하면 해롭다고 해석하면서 공자가 괴력난신도 공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연재는 이와 상반되게 괴력난신이 곧 이단이기에 공자가 말씀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 듯하다.

그러나 괴력난신을 이단으로 보는 견해에도 맹점이 있다. 怪異·勇力·悖亂은 바른 이치가 아니니 이단으로 배척할 수 있지만, 귀신은 조화의 자취이니 이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도리어 이치를 지극히 궁구해야만 밝힐 수 있다.⁹⁹⁾ 따라서 神의

96) 『논어』 「八佾」 24장, 「憲問」 34·41·42장, 「微子」 5·6·7장 참조.

97) 『집주』에서 주자는 封人을 “賢하면서 낮은 지위에 숨은 자”, 미생묘를 “나와 덕이 있으면서 은둔한 자”, 晨門을 “賢人으로서 관문 지키는 일에 은둔한 자”, 접여를 “孔子를 존중할 줄 알았으나 취향이 같지 않은 자”라고 하였다.

98) 宋秉璫, 『淵齋集』 권12, 「書」, 〈答芮國彥[大富 別紙]〉, “夫子時異端, 如怪力亂神之類, 非楊墨老佛之徒也.”

99) 『論語集註』, 「述而」 20장 註, “怪異勇力悖亂之事, 非理之正, 固聖人所不語, 鬼神, 造化之迹, 雖非不正, 然非窮理之至, 有未易明者, 故亦不輕以語人也.”

영역까지 이단으로 보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 같다.

이를 종합하면, 성인의 도가 아닌 것은 모두 이단이라는 인식 하에 이단의 범위를 넓게 확장하는 학자들은, 楊墨老佛에 더하여 卜筮醫農도 이단으로 보거나, 鄉原 내지 隱者 또는 怪力亂神을 이단으로 보거나, 아니면 老子 및 鄉原과 隱者들을 아울러 이단으로 보기도 하였지만, 어느 경우에도 문제점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IV. 맺음말

『논어』 「위정」 16장 “子曰 攻乎異端 斯害也已”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고대 문헌이다. 이 章의 해석에는 크게 세 가지 異說이 존재하는데, 이는 ‘攻’자와 ‘已’자에 대한 풀이 및 ‘이단’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해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세 해석 중 첫 번째는 ‘攻’을 ‘治’ 또는 ‘專治’로, ‘已’를 어조사 또는 限定의 어기사로 보아 “이단을 (專)治하면 해롭다(또는 해로울 뿐이다)”고 해석하였다. 두 번째는 ‘攻’을 ‘공격’으로, ‘已’를 ‘止’로 풀어 “이단을 공격하면 해가 그친다”고 해석하였다. 두 해석은 이단을 배척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주자는 ‘攻’을 ‘공격’으로 보는 일체의 견해를 배격하고, ‘攻’을 ‘治’로 보는 古註를 계승하여 『집주』에서 ‘攻’을 ‘專治’로 풀이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칫 “이단을 專治하면 해롭지만 略治하면 해롭지 않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조선후기에는 당색과 시기를 불문하고 이러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처럼 ‘專治’의 함의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단을 공격하면 해가 그친다”는 두 번째 해석은 “이단을 專治하면 해롭다”는 첫 번째 해석보다 闢異端의 메시지가 더 선명하여, 조선후기에는 『집주』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 해석을 고수하는 학자들도 종종 있었다.

세 번째 해석은 ‘攻’을 ‘공격’으로 보되 ‘已’는 어조사로 보아 “이단을 공격하면 해롭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단을 지나치게 공격하면 도리어 분란이 야기되어 좋지 않다는 뜻으로, 앞의 두 해석과는 상반된다. 북송의 장횡거를 비롯하여 呂·謝·楊·周氏는 공호이단장을 이렇게 해석했지만, 조선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

가 박세당 외에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자칫 이 해석이 유가 도통론의 한 핵심인 闢異衛道에 위배되고, 특히 양무를 통렬히 논척한 맹자의 闢異端이 잘못된 행위로 치부되는 큰 맹점에 봉착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이단을 略治하면 無害하느냐는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小註의 주자설이나 경문의 ‘斯害也已’에 주목하여 ‘專治’의 함의가 “略治는 해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님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는 주로 노론 학통에 속한 학자들에게 의해 이루어졌다. 다른 하나는 ‘이단’이 무엇인가에 대해 아예 朱子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다.

주자는 공자가 말한 이단이 누구를 지목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이단’의 의미가 楊墨老佛과 같은 邪說亂道임은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조선후기에는 공자 당대에 양묵노불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했어도 그 세력이 확산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학자들이 매우 많았다. 따라서 공호이단장의 ‘이단’은 양묵노불이 아닌 다른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상당하였다.

특히 주자설에 비판적인 성향을 지녔거나 소위 실학자로 분류되는 남인 학통의 학자들은 「위정」편 16장의 ‘이단’이 「자장」편 4장의 ‘小道’와 같다고 주장하였다. 小道는 他技, 百家, 百工衆技 등으로 규정되는데,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農圃·醫巫·卜筮·兵學 등을 포함한다. 이단을 소도로 보면, 專治는 害가 되니 해서는 안 되지만 略治는 해도 되기에, ‘攻’을 ‘專治’로 풀이해도 오해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러한 견해는 이단을 邪說亂道와 구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단에 대한 비판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마는 단점이 있다.

혹자는 또 聖人의 道가 아닌 것은 모두 이단이라는 포괄적 인식 하에, 공자가 매우 비판한 향원을 이단으로 규정하거나 장저·걸익 같은 隱者 또는 怪力亂神을 이단으로 규정하지만, 여기에도 각각 문제점이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위정」편 16장은 ‘功’과 ‘已’자를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혹은 ‘이단’을 무엇으로 규정하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반론 없는 명쾌한 해석으로 인정받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先儒들의 여러 견해를 통해 扶斯道 闢異端의 의미를 다각도로 되짚을 수는 있다. 이 점이 攻乎異端장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하는 本考의 의의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論語』, 『孟子』, 『中庸』, 『孔子家語』, 『揚子法言』, 『論語義疏』(皇侃), 『論語注疏』(十三經注疏), 『論語集註』, 『論語集註大全』, 『孟子集註』, 『中庸章句』, 『四書或問』, 『論孟精義』, 『論語諺解』(校正廳本), 『論語諺解』(栗谷本)

『論語釋義』(李滉), 『蒲渚遺集』(趙翼), 『晚悔集』(權得己), 『經書辨疑』(金長生), 『泉上講說』(李絳), 『大山集』(李象靖), 『滄溪集』(林泳), 『芝峯類說』(李晬光), 『宋子大全』(宋時烈), 『農巖集』(金昌協), 『白湖全書』(尹鐸), 『厚齋集』(金幹), 『霞谷集』(鄭齊斗), 『屏谷集』(權渠), 『星湖全集』·『論語疾書』·『星湖塞說』(李瀾), 『正菴集』(李顯益), 『思辨錄』(朴世堂), 『寒水齋集』(權尙夏), 『息山全書』(李萬敷), 『藥泉集』(南九萬), 『鹿門集』(任聖周), 『溪湖集』(金元行), 『經書笥錄』(金龜柱), 『弘齋全書』(正祖), 『耳溪外集』(洪良浩), 『存齋集』(魏伯珪), 『老柏軒集』(鄭載圭), 『無名子集』(尹愔), 『三山齋集』(金履安), 『剩書』(尹光心), 『論語古今註』(丁若鏞), 『弄丸堂集』(魚周賓), 『論語詳說』(魚有鳳), 『龜巖集』(李元培), 『守宗齋集』(宋達洙), 『鳳村集』(崔象龍), 『五書古今註疏講義合纂』(崔左海), 『月波集』(鄭時林), 『過齋遺稿』(金正默), 『肅齋集』(趙秉德), 『老洲集』(吳熙常), 『壺山集』(朴文鎬), 『蘆沙集』(奇正鎮), 『寒洲全書』(李震相), 『華山集』(鄭奎漢), 『淵齋集』(宋秉璿), 『省齋集』(柳重教), 『毅菴集』(柳麟錫), 『雲養集』(金允植), 『茶田經義答問』·『俛宇集』(郭鍾錫), 『晦堂集』(張錫英), 『巖棲集』(曹兢燮), 『遜庵集』(申晟圭), 『己丑錄下』(黃赫)

권문봉, 「성호의 『논어』 주석 일고찰-『논어질서』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19,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김영호, 「李星湖의 論語說 考」, 『동양문화연구』 1, 영산대 동양문화연구원, 2007

金曉東, 「乃菴 崔左海의 論語 解釋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2

유흔우, 「〈論語〉 ‘攻乎異端’ 章에 대한 한·중·일 주석의 비교」, 『한중인문학연구』 56, 한중인문학회, 2017

李康齊, 「《論語》 上十篇의 解釋에 대한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8

이경무, 「儒學의 道統과 學的 傳統」, 『철학연구』 92, 철학연구회, 2004

지준호, 「朱子門人의 道統意識」, 『동양철학연구』 35, 동양철학연구회, 2003

최석기, 「遜庵 申晟圭의 『論語講義』 연구」,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5

함영대, 「晚悔 權得己의 학술정신과 『孟子僭疑』」, 『韓國思想史學』 55, 한국사상사학회, 2017

孟冲, 「孔子“攻乎异端”思想新论」, 『管子学刊』, 2014

许超杰·王园园, 「《论语》“攻乎异端,斯害也已”解」, 『唐山学院学报』 28, 2015

A Study on Gonghoyidan as a Chapter of 『Lunyu』 — Focusing on Various Theories from the Late Joseon Period

Yu, Young-Og

Gonghoyidan, a chapter of 『Lunyu』 is differently interpreted depending on how to understand letters ‘Gong’ and ‘Yi’. More specifically, ①Full devotion to heresy does harm, ② Aggression of heresy ceases harm, and ③Aggression of heresy does harm. A majority of Joseon’s scholars took ‘Gong’ as ‘devotion’, for 『Jiphu』 did so. However, a few of them followed the idea of aggression-cease because it implies excluding heresy more strongly than devotion to heresy. Few or no scholar accepted the idea of aggression as in the above ③, because it seemingly fail to comply with rejecting heresy.

By the way, the idea of devotion kept causing a particular suspicion, “Is full devotion or dealing with heresy in a full way harmful, but light devotion or dealing with it in a rough way unharmed?” To resolve this matter has two approaches. One is to note minor annotations of Zhu-zi’s thoughts, thereon proving that ‘full devotion’ has never an implication that dealing with heresy in a rough way is acceptable. The other is to define as heretical artistic skills, especially miscellaneous crafts or Baekgongjunggi without sticking to Zhu-zi’s view that vicious theories like the ideas from Yang-zu, Mo-zi, Lao-zi and Buddhism or Yangmuknobul are heretical. Such definition allows for dealing with heresy in a rough way, resultantly keeping the idea of full devotion from being misunderstood. It has, however, a limitation that criticism of heresy relatively weakens due to discrimination between heresy and vicious theory.

Key Words : Gonghoyidan as a chapter of 『Lunyu』, ‘Gong’ · ‘Yi’, heresy, Yang-zu · Mo-zi · Lao-zi · Buddhism, artistic skills, Hyangwon